

100년만의 폭설 현장에서



김 승 환
문화방송 보도국 생활과학부 기자
cocoH@mbc.co.kr

〈정확하지 않은 일기예보와 특보〉

지난 1월 4일 서울에는 25.8cm의 폭설이 쏟아졌다. 종아리까지 빠지는 폭설에 도시 기능은 마비되고, 세기적인 폭설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연례행사처럼 기상청에 쇄도했다. 1월 3일 오후 기상청 예보는 중부지방에 다음날 2에서 7cm, 많은곳은 10cm 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사전에 많은 눈이 올것으로 예측하긴 했지만 실제 쏟아진 눈은 예보수준을 크게 웃돌았고, 이 예보

를 보고 100여년만의 폭설을 예상한 시민과 공무원은 거의 없었다. 기상청은, 서울지역에 최고 10cm 이상의 눈을 예보해 놓고, 예비특보를 내리지 않았다. 예비특보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예령같은 것이다. 1월 4일 서울은 새벽에 대설주의가 발령됐고, 출근길 무렵에 경보로 강화발령됐다.

〈제설작업〉

상황이 더 나빴던 건 폭설이 월요일 새벽 출근길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날부터 제설당국이 비상대기를 하며 폭설당일 긴급제설작업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제설작업은 낙제점에 가까웠다. 출근길 곳곳에서 차가 눈에 갇히고 미끄러지고, 시민들은 폭설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는 차를 버리고 걷기도 했다. 많은 곳에서 제설차를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수십년마다 한 번씩 내





리는 큰 눈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나 미국 중동부 지역처럼 대규모 제설장비와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예산낭비겠지만, 현재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민의식>

폭설 당일 출근길 일기예보와 당국탓을 하느라 목이 설 지경이었던 시민들도 상황악화에 한 몫 했다. 10cm 안팎의 폭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체인이나 스노우타이어 등 기본적인 장구도 없이 눈이 내리는 도로위로 안이하게 자동차를 끌고 나온 시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이 중 상당수는 눈에 갇혀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차를 버리고 가버려 도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이런 시민의식이 제설차량 통행도 지장을 초래해 제설작업을 어렵게 했다. 뿐만 아니라 내집앞 눈은 스스로 치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에 눈이 치워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후 차량이나 사람이 눈길에 미끄러져 다치거나 부서지는 피해가 지속됐다.



<미디어>

시민들이 아무 생각없이 출근길에 차를 끌고 나오도록 만든데는 미디어도 반성할 대목이 있다. 10cm 안팎의 눈이 과연 어떤 상황일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을 한 것일까. 충분한 경고가 있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2006년 갤럽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의 95.8%가 TV를 통해 기상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했다. 그런 면에서 방송뉴스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큰 책임을 공감하기도 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바일 시스템이 발달해 4년전보다는 TV의 역할이 줄었겠지만, TV나 각종 매체를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미디어의 역할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기상청이 아무리 일기예보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전달이 잘 안되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겨울철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재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청이 정확한 예보를 내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제설당국의 신속하고 잘 훈련된 대응과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일기예보와 현장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미디어가 모두 제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다.